

영광군, 출생아 수 167명 증가

인구일자리정책실 신설 · 다양한 맞춤형

인구 · 결혼 · 출산 · 일자리 · 청년정책 성과



영광군은 2019년 12월 말 결혼 · 출산 통계 결과 전년 대비 결혼 건수 57명, 출생아 수 167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2위인 경기도 시흥시(141명)보다 26명이 더 높았다.

또한 12월 말 영광군 인구수는 전월 대비 3명이 감소한 53,852명으로 전년 대비 57.5%의 감소율

둔화를 보이며 372명 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여 다양한 맞춤형 인구 · 출산 정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 전라남도 인구중흥 평가에서 시군 1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영광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 영광군 인구 회복을 위해

새로운 시책들을 추가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영광군은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확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셋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3,000만원을 여섯째아 이상은 3,500만원을 상향 지원한다.

또한 건강한 결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예비 · 신혼부부교실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 조성 등을 위한 다둥이가족 행복여행도 새로이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만 지원해주던 것을 전세자금 대출이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년센터 확장 이전 운영, 청년 321 프로젝트 등 맞춤형 청년 시책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광읍 구도심의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 거리인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조성에도 힘쓴다.

군 관계자는 “2019년의 다양한 맞춤형 인구 · 출산 정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결과를 거두었다”며 “2020년에도 새롭고 다양한 시책 추진에 힘써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담양군의회, 전국 최초 폐농자재 위탁처리 지원 조례 발의

폐농자재 위탁처리로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

담양군의회는 ‘생태도시 담양’의 위상에 걸맞게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하우스 등 폐농자재 위탁처리 지원 내용을 담은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 ·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농업인의 농사경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의 경관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김정오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2월 20일 제289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폐농자재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폐농자재 수

거 · 처리 등 추진사업과 그 범위 및 사업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농자재 간이처리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와 폐농자재 적치 및 수거 ·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폐농자재 수거 ·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정오 의장은 “시설하우스가 늘면서 농촌들녘에 폐비닐, 보온덮개 등 폐농자재의 무단 방치로 농촌 경관훼손은 물론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기존 폐농자재 수거 체계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과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농업인의 자발적 수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농촌지역의 폐농자재 위탁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오 의장은 지난해 10월 제288회 임시회에서 ‘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조례’에 대해서도 발의해 올해 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사업 본격 추진

곡성군은 지난 6일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 읍 · 면 산업팀, 멜론 유통법인회사 관계자 등 13명이 모인 가운데 곡성 명품멜론 안정생산 사업 추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명품멜론 안정생산 사업은 우리군 특화작목인 멜론 생산물 전량을 관내로 출하하는 농가에게 육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멜론 재배기반과 유통경로를 확보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년간 추진된다.

또한 멜론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유통법인회사와 생산멜론 전량 출하약정을 맺은 후 계약이행 시 멜론의 육묘비 일부를 지원받는 순으로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곡성군에서 생산한 명품멜론의 유통 경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한



을 강조했다며, 점진적으로 계획생산 · 계획출하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내멜론유통법인으로 산 · 계획출하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채소화훼팀(061-360-7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도현 기자

여수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22억 지원

여수시가 사업비 22억여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702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55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52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99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지

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주택이 대상이며, 171구당 120㎡ 기준 344만 원까지 철거비가 지원된다.

또 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 53가구는 슬레이트 처리비와 지붕개량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 건축물도 사업 대상에 포함돼 172만 원까지 사업비가 보조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 2019 각종 사업 사전심사로 45억원 예산절감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예방 · 절차의 간소화

고흥군은 2019년 각종 분야별 사업 976건 3,449억원에 대한 사업 및 설계변경 발주 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특정감사 등 사전심사를 통해 4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537건 1,125억원의 원가산정, 설계서, 법정경비율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과다책정 단가, 불필요 공종, 현장여건 부합 시공 등 사전 심사 · 조정으로 37억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했으며, 이는 2018년 절감액인 23억원 대비 62%가 증가한 금액이다.

일상감사는 357건 1,791억원의 사업추진과 집행, 절차, 목적의 사용 등을 검토하여 6억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행정낭비 및 시행착오를 막고 부실 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품질확보에도 기여하는 등 1석 2조 효과를 거양했다.

특정감사는 82건 533억원에 대한 설계변경 신청 타당성과 추진 과정을 검토하여 2억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견실시공도록 하고 탄력적 운영으로 조기집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별도 운영되던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부서의 일원화로 절차의 간소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2월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계약심사 업무편람’을 펴내 발주부서 직원들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발주부서 요청 시 미흡한 사항과 조정사례를 전파 · 정보공유 등을 통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 심사 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한윤섭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 · 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 · 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 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 · 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